

지역 수도권 유학생 1만명 키운 '남도학숙' 개관 20년



28일 개관 20주년을 맞은 남도학숙은 그동안 1만명의 지역 인재를 키워낸 '인재요람'이다.

광주·전남 인재 양성 요람으로

남도학숙이 28일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1만명의 인재를 품었던 명실상부한 '인재 요람'이 이 날 역대 원장, 졸업생,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조촐한 기념식을 갖는다.

남도학숙의 시작은 지난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중한 지역 인재들이 물가 높은 서울의 하숙이나 자취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988년 광주일보가 '지역인재를 키움사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전남도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역 인재들을 위한 '학숙'이 시급하다며 광주시와 '남도학숙'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지난 1989년 12월14일이다.

싼 시유지를 찾아달라는 당시 송연중 광주시장의 부탁을 받은 고건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200평을 소개해줬다. 1975년부터 3년2개월간 전라남도 도지사를 지냈던 고 시장 역시 그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건립추진위는 열악한 지자체 사정상 시·도비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시도인 성금 모금에 나선 것이 1989년 말부터다. 기업인, 농민, 상공인, 회사원, 주부, 학생 등 두려 17만여명이 성금을 기탁하고 여기에 광주시, 전남도 및 각 시·군이 예산을 보태 278억원

9500명 졸업...현재 850명
숙식제공에 해외연수까지
졸업생 심시일반 장학금도

이라는 '거금'을 만들었다. 곧바로 1990년 5월31일 기공식을 가졌으나 암초를 만났다. 외교부가 구기동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고 시장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옛 공군본부 부지를 소개해 1990년 말 다시 기공식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현재는 지역 인재들을 위한 '학숙'이 시급하다며 광주시와 '남도학숙'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지난 1989년 12월14일이다.

지금까지 9500여 명이 지나갔고 현재 입학생은 85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총마다 있던 휴게실 리모델링을 통해 개관 당시부터 20년간 유지했던 정원 810명(광주 405명, 전남 405명)에서 40명 늘려 입학생을 선발했을 뿐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 가운데 성적과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남도학숙 입학생은 풍족하지 못한 형편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매달 내야 하는 부담금은 저렴한 수밖에 없었다. 개관 당시 10만원이었던 부담

금은 20년이 지난건만 고작 4만원이 올랐다. 14만원이면 한 달 동안 아침식사부터 점심, 저녁식사 그리고 잡자까지 제공받는데 해외연수, 장학금 혜택도 커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것은 물론이다. 매년 경쟁률은 3대1을 넘기고 있다. 나머지는 시와 도가 각각 7억원의 지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역이 키운 인재라는 의미다.

이들 인재들도 '은혜'를 잊지 못하고,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하고 있다.

남도학숙 출신들이 남우회, 남지회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년 200만원과 4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놓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매달 5만~10만원씩 기탁하는 졸업생들도 있다.

첫 졸업생들이 40대 초반 정도인 이들은 법조계, 학계, 재계, 교육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개관 당시부터 남도학숙에 근무하고 있는 정병수 씨는 "가난한 지역 인재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었다"며 "이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며, 자신들이 머물렀던 학숙을 잊지 않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출산율 전국 1위

지난해 1.52명 ... 고령자 많아 사망률도 높아

1천명당 출생아 8.6명 역대 최저 '초저출산국'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떨어 다시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하루 평균 1196명이 태어나고 730명이 사망했다. 전남은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6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0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었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84세로 0.22세 올랐다.

산모 다섯명 중 한명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구성비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성비(性比)는 105.3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다. 통상 103~107명이면 정상적인 성비로 본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1.52명), 충남(1.44명), 세종(1.44명) 순이었다. 출생아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2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00명(0.3%)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3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 조사망률은 전남(8.6명), 경북(7.6명)이 높았고 서울(4.2명)과 경기(4.2명)가 낮았다. 지난해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7만1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줄었다. 역대 가장 적은 숫자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자연증가율은 1980~1990년대에는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일이 흔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연합뉴스

때아닌 민어 '퐁어' 봄조기는 '가뭄'

민어 1일 최고 1800마리 위판... 다음달 조기잡이 본격화될 듯

때아닌 민어는 풍년인 반면 한창 잡힐 '알이 퐁퐁 뽀' 봄조기 어획은 부진해 목포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어가 신안 흑산, 만재도와 제주도 이어도 근해에서 많이 잡히면서 수협 위판장은 민어 물결이다. 수협은 지난 25일 평균 6kg짜리 민어 900마리를 위판한 데 이어 26일 1800마리(12t)로 사상 최고의 위판량을 기록했다. 27일에는 600마리가 위판됐다. 민어월인 7~8월 위판량이 500~60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겨울에 이처럼 많이 잡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kg당 1만5000~2만5000원 선이다.

반면 봄조기 어획은 부진하다. 기상 악화로 조기잡이 배가 출어를 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조업에 나선 어선도 출어비를 건지지 못할 정도라고 수협은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달 조기잡이가 본격화되면 양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북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거리 200km 이상 4발

국방부는 27일 "북한이 이날 오후 5시42분 강원도 강릉지역 일대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발사체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3월부터 광대역LTE 서비스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가 앞다퉈 광대역 통합에블루션(LTE) 서비스를 광주 등 전국 광역시로 확대한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광대역 LTE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들은 기존의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모든 광역시에서도 기존 LTE보다 2배 빠른 광대역 LTE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7월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전국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도 내달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모든 광역시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이동사와 마찬가지로 전국 광역시 수준의 광대역 LTE 서비스는 7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다음 달부터 전국 광역시에서 2.6GHz 대역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기지국 간 전파간섭을 최소화해 업로드 속도를 향상시키는 '업링크 콤포' 기술을 상용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 최대속도 300Mbps(초당 메가비트)의 3밴드 주파수복합기술(CA)도 제공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1면 '선거철 행정누수'서 계속

전남도의 경우 3선 연임 제한으로 현 박준영 도지사가 불출마, 지역 국회의원, 전 기초단체장 등 유력 주자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세'를 불리해서 공직자의 출사기도 심각한 모양새다. 일부 도청 공무원도 학연·지연 등을 따져가며 이미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

박 지사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다잡고 지시·질책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간부는 박 지사의 업무 지시를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일하는 시늬만 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일부 간부는 신규 행정을 추진할 경우 '신임 도지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화순군이나 안동군 등 상대적으로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기초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임 영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선 시대의 한계는 단체장이 선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이는 공무원의 출사기 관행 등 각종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약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 제도적 틀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자치단체장 스스로 이러한 폐해를 막고 안정적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제26기)결산공고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잔액	과목	잔액
자 유 동 자 산	18,593,396,428	부 유 동 부 채	17,679,765,65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6,051,889,461	1. 매 입 채 무	3,022,680,917
2. 단기금융상품	6,999,925,383	2. 미 지 급 금	327,935,184
3. 매출채권	2,804,800,000	3. 기타미지급금	85,114,441
4. 대 손 채 권	4,788,891,377	4. 단 기 차 입 금	8,000,000,000
5. 대 수 채 권	47,888,913	5. 선 수 금	12,442,586
6. 미 수 채 권	168,027,902	6. 예 수 금	74,552,144
7. 선 받 대 리 점	278,645,688	7. 미 지 급 비 용	985,111,053
8. 미 수 수 익	186,255,534	8. 미 지 급 법 인 세	552,611,447
9. 선 금 비 용	607,106,551	9. 미 지 급 배 당 금	14,360,450
10. 기타의당좌자산	55,713,809	10. 선 수 수 익	1,271,337,428
11. 유동성장기차입금	108,450,371	11. 유동성장기차입금	3,333,320,000
12. 이연법인세자산	125,961,759		
(2) 재 고 자 산	2,541,506,967	부 비 유 동 부 채	3,049,162,267
1. 재 장 품	2,541,506,967	1. 장 기 차 입 금	2,499,990,000
2. 유 동 자 산	55,856,418,990	2. 퇴 직 금 여 출 당 금	1,118,281,283
(1) 투 자 자 산	17,153,855,818	퇴직연금준비금	(1,100,289,016)
1. 장 기 금 용 상 품	6,000,000	3. 임 대 보 증 금	530,550,000
2. 매 도 가 능 권	3,308,231,143		
3. 지분법적용투자자산	13,839,624,675	부 채 총 계	20,728,927,917
(2) 유 형 자 산	38,176,044,989		
1. 토 지	1,386,085,205	자 본 분	5,200,000,000
2. 건 물	3,095,514,475	1. 자 본 분	5,200,000,000
3. 선 선	1,286,917,630	1. 보 통 주 자 본 금	5,200,000,000
(99,866,249,954)			
4. 카 세 트 콘 테 이 너	68,372,763,087	1. 자 본 잉 여 금	1,089,260,269
5. 가 사 가 능 권	21,923,937,122	1. 기 타 자 본 잉 여 금	1,089,260,269
6. 공 기 구 비 품	292,194,714		
7. 중 량 물 운 송 장 비	4,848,369,925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58,047,177)
8. 건 설 중 인 자 산	1,637,396,328	1. 예 타 동 권 광 (가) 의	701,945,400
(3) 기타비유동자산	2,526,518,183	2. 예 타 동 권 광 (가) 손	(1,542,772,141)
1. 보 증 금	2,090,018,208	3. 지 분 법 자 본 변 동	(517,220,436)
2. 이연법인세자산	436,499,975		
		IV. 이 익 잉 여 금	48,789,674,409
		1. 법 정 적 립 금	1,260,000,000
		2. 임 의 적 립 금	42,800,000,000
		3.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4,729,674,409
자 산 총 계	74,449,815,418	자 본 총 계	53,720,887,51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449,815,418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2월 28일
광양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용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26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장지환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품암금회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